

오리온 단체 IR 후기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454-4874
6414@meritz.co.kr

RA **최윤희**
02. 6454-4888
yoonhee.choi@meritz.co.kr

Comment

19.7월 실적 호조로 8~9월 성장 기대감 확대. 중국은 매출인식 변경 효과를 제거해도 매출액 790억원, 영업이익 144억원으로 각각 전년비 7.5%, 28.6% 성장. 2Q19 출시한 스낵/소프트 캔디 신제품 매출액 60억원 달성하며 외형성장에 기여. 베트남은 재고 이슈 해소로 고성장, 쌀과자 신제품 매출액 10억원, 양산빵 4~5억원 기록 중 러시아는 기존 제품 매출액 견조한 가운데 다크/초코칩 초코파이 신제품 시장 안착. 국내는 경쟁사 재고 이슈 및 신제품 출시 효과로 정체된 시장환경에도 외형성장 지속 중

중국 제과

19.7월 중국(매출 인식 변경 효과 제거 기준) 매출액 790억원, 영업이익 144억원 기록(기존 대리상 인도 시점 기준에서, 제품 출고 시점으로 변경). 매출 인식 변경효과는 춘절 매출이 포함될 4분기까지 일시 반영 매출액 70억원, 영업이익 35억원 예상. 7월 매출액 성장 요인은 스낵, 소프트캔디 신제품 효과로 매출액 60억원 성장에 기여. 전년도 8월, 9월 중국 매출액이 각각 867억원, 950억원으로 베이스가 높지만 10월 국경절을 앞둔 8~9월 스낵 계절적 성수기 + 신제품 효과 반영되며 yoy 성장 기대 여전히 유효

중국 신제품은 상반기 7~8개 출시, 하반기 10~11개 계획. 3분기는 스낵 플레이버 확대, 4분기는 파이/비스킷 신제품 확대할 계획. 매출 증가를 위한 비용 투입(신제품/매대 관련 비용, 판촉비 등) 예상되지만 절대 영업이익 규모를 늘리는 방향 유지. 유통채널은 MT 42%, TT 51%, 온라인 7% 비중에서 MT 30%, TT 55%, 온라인 15% 변경 기간은 2~3년 예상. 중국은 화남(광동성) 지역 확대를 위한 노력 지속 중 7월달 1,700개 매장 행사 매대 신제품 중심으로 확보. 3분기는 높은 기저에도 신제품 매출 효과로 성장, 4분기는 이른 춘절효과 매출액 500억원 반영 예상

국내 제과

어려운 국내 제과시장 환경에도 불구하고 성장 지속 중. 치킨팝, 포카칩 신제품, 썬 신제품 매출 성장 효과로 경쟁사 부진대비 독보적인 성장 달성. 경쟁사 상반기 판촉 행사로 재고부담이 동사에 반사이익으로 작용 중. 국내는 공격적인 신제품 출시로 해법 모색, 신제품 출시는 18년 31개, 19년 50개 예상

베트남 제과

베트남 땀 시즌 재고 소진 완료되면서 7~8월 재고보충 수요 발생 중. 7월 초코파이 65% 성장, 카스타드 35% 성장으로 빠른 회복세. 쌀과자 매출액 월 10억원 기록. 양산빵 3~4억원, 18년 중단했던 이란 검수출 7월 재개되며 14억원 매출액 발생

러시아 제과

신제품 출시에도 기존 오리지널 초코파이 매출액 견조함. 신제품 초코칩 초코파이, 다크 초코파이 반응 긍정적이며 하반기 라즈베리, 체리 초코파이 출시로 파이 카테고리 라인업 강화. 러시아도 브랜드 늘려가는 전략이 지속되며 20년 매출 캐파 확대, 장기 매출 연간 3,000억원 목표

기타내용

생수는 10월 국내 신제품 출시, 중국 판매는 20년 하반기로 예상. 사업 초기는 월 10억원 매출액에 수익성은 소폭적자 및 BEP 예상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8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 (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8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8월 2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 최윤희)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